

순천, 가족 다양성 존중받는 도시 만든다

한부모 가정 사업비 40억 투입
다문화 가정 언어·교육 서비스
중·장년층 노후 준비 지원 눈길

순천시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순천에서 정원뿐만 아니라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 등 사회의 가장 기반단위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생활안정과 빠른 자립 및 자녀의 올바른 양육 지원을 위해 총 40억7,600만원의 예산을 한부모 가족사업에 지원한다. 2023년 5월 말 기준 한부모 가족은 836가구(1,876명)로 시 전체 가구 기준 0.6%에 해당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를 비롯한 4개 분야의 사업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대학입학자금(최대 150만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시설 거주 지원 및 퇴소 시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며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결혼이주여성 증가율



순천시가 주최한 3대가 함께하는 가족축제.

/순천시 제공

이 다소 주춤했으나 다시 활성화 될 전망으로 다문화 여성은 순천시 전체 인구의 4% (5,00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책도 추진 중이다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순천시가족센터와 함께 방문 교육서비스 및 지자체사업 등 15개 사업 8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언어, 교육, 정보제공, 상담, 문화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을 위해 언어발달 서비스, 자녀 일상 생활 서비스, 학습지도, 자녀 상담 등 가정 방문교육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회일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취업 지원교육을 신규로 실시해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등 직장인으로 갖춰야 할 인문학적 소양과 실질적 경제활동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순천시는 다양한 유형에 맞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가족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한부모·위기 가족 등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가족 서비스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순천시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을 통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

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사회적 돌봄(가족폭앗이) 형태의 돌봄으로 육아 부담 완화 및 이웃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순천시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순천시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설계를 돕는다.

노관구 순천시장은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정책방향도 변화되고 있다”라며 “가족해체 예방 및 건전한 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일류도시 순천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구례, ‘부처님 오신 날’ 찬탄 화엄사서 국화묘 5천주 나눔

구례군은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꽃으로 가득 채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일환으로 최근 화엄사에서 국화묘 5,000주를 무상으로 나눠줬다.

국화묘는 구례군도시재생지원센터와 꽃재운 국화사랑회원들이 육묘했으며 10월 중순에 피는 노란색의 화사하고 소담한 화단국이다.

또한 ‘매직랩액자’ 108개를 어린이에게 나눠 주며 보리수 나뭇잎을 즉석 누름꽃으로 만드는 체험 행사를 가졌다.

구례군과 화엄사는 2015년부터 역사·문화와 관광을 바탕으로 미래를 지향하고 구례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도록 MOU를 체결해 협력해 왔다.

국화 중묘 나눔 행사는 국화전시회 후반 부분과 도시재생 어울림마당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주민들과 화엄사가 상생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구례=손석봉 기자

순천대,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 전남 주둔지·학살 현장 발걸음

순천대가 지역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보기 위해 29일 유적지 답사에 나섰다.

순천대 인문학술원(원장 강성호)과 여순지역학 전공 학생들이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된 이번 답사는 여수지역 내 여순사건과 관련한 장소들을 둘러봤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구례 10.19 연구회, 광양 여순 10.19 연구회도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여수지역학 전공(주요 강성호)이 전남동부지역 여순사건 관련 연구자들이 연합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행사는 여순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희생자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다 희생자들의 명예조자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순천대 및 지역내 활동자들이 모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해 기획했다.

유적지 해설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선임 소장인 박종길 소장이 진행했다. 여순지역학과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순천 지역에서 여순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를 비롯해 구례 10·19연구회, 광양 여순 10·19연구회 회원과 관심있는 일반 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답사 장소로 전정의 흔적을 볼 수 있는 14연대 주둔지 신월동 일원과 진압군과 첫 전투지였던 연등동 잉구부를 둘러봤고 당시 여수인민대회가 열렸던 이순신광장 인민대회장소를 방문했다. 아울러 진압완료 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학살 장소인 초등학교와 만성리 형제묘 등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우성진 기자

광양 현안사업 국비확보 총력 주순선 부시장, 중앙부처 건의



주순선 광양부시장이 당면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주순선 부시장은 최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광양국가산업단지 동호안 개발 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 광양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먼저, 환경부를 방문해 ▲광양시 구봉산 생태축 연결사업(35억) ▲중앙·진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40억) 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국토부를 방문해 광양국가산업단지(동호안) 개발 계획 변경과 관련해 “LNG관련 시설에 대해 에너지공급설비로 분류하는 것보다 산업시설용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30일부터 고흥군 생활체육공원 구장에서 차범근축구교실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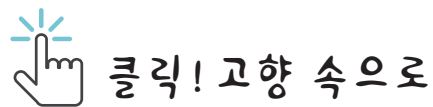
/고흥군 제공

고흥, ‘차범근축구교실’ 개강

기초단체 최초... 초등생 85명 선발

고흥군은 30일부터 고흥군 생활체육공원 구장에서 본격적으로 ‘차범근축구교실’이 운영

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운영하는 차범근 축구교실은 지난 4월 25일에 창단식을 하고, 관내·외 초등학교생 85명을 선발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소라면, 취약계층에 맞춤형 꾸러미 전달

여수시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중증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13세대에 맞춤형 꾸러미를 전달했다. 맞춤형꾸러미에는 협의체 위원들이 가구별 상담을 통해 선정한 영양제, 여름이불, 생필품, 선풍기 등 39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다. 이영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로 맞춤형 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으로 ‘따뜻한 소라면 마을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순석 소라면장은 “가정의 달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보성읍 여성자원봉사회, 밑반찬 나눔

보성군은 최근 보성읍 여성자원봉사회(회장 황금신)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봉사는 보성읍 여성자원봉사회원 20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장조림 등을 만들어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안전 확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병행 추진했다. 보성읍 여성자원봉사회 황금신 회장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우 보성읍장은 “읍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봉사에 준 보성읍 여성자원봉사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재경고흥군 향우부인회, 고흥기부금

고흥군은 최근 재경고흥군 향우부인회(회장 김희정) 회원들이 고흥에 고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고흥군에 따르면 재경고흥군 향우부인회 회원들은 최근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웨딩시티에서 개최된 재경고흥군 향우부녀회 제1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자

리에서 고흥을 살리고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자는데 뜻을 모아 고흥사랑기부에 동참했다. 김희정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보람 있다”며 “고흥군이 고흥사랑기부금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흥=진중언 기자